

2020년 7월 16일

#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코로나 백신 Vs. 미-중 마찰, 경기, 신용리스크 트럼프, “중국 고위 관리들 추가 제재 원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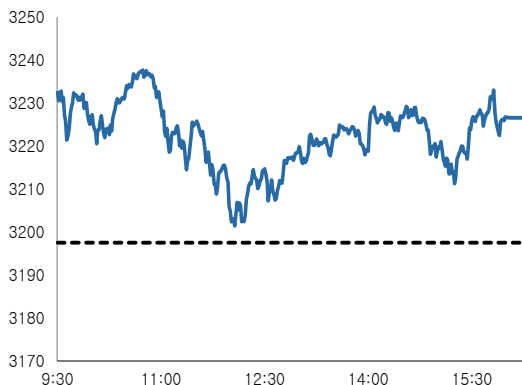
### 미 증시 특징: 대형 기술주 변동성 확대 지속

미 증시는 모더나와 아스트로제네카 등 기업들의 코로나 백신 관련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진 데 힘입어 상승 출발. 그러나 대형기술주의 부진과 화웨이에 대한 규제 강화로 미-중 마찰이 부각되자 혼조세로 전환하는 등 변동성 확대. 오후 들어 트럼프가 중국 고위 관리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배제한다고 발표하자 반등. 한편, 연준은 베이지북 통해 경기 불확실성을 언급해 상승을 제한하며 마감(다우 +0.85%, 나스닥 +0.59%, S&P500 +0.91%, 러셀 2000 +3.50%)

모더나(+6.90%)가 임상 데이터 세부내용을 발표하며 한 때 18% 급등. 아스트라제네카(+7.45%)도 데이터를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하는 등 코로나 백신/치료제와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은 투자심리 개선 효과. 그렇지만 모더나의 데이터에서 연령, 인종 분포, 부작용, 항체 반응의 지속성과 관련된 논란이 부각되자 모더나의 상승폭이 축소되며 지수 상승 제한. 여기에 폼페이오가 인권과 국가안보를 이유로 화웨이 등 일부 기업들의 인사들에 대해 제재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는 등 중국과의 마찰이 확대된 점도 장중 지수 상승폭 축소 요인. 물론 신용 평가사 S&P가 2분기 기업들의 신용등급 강등이 414건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등 신용 리스크가 부각된 점도 부담

그러나 오후 들어서는 트럼프가 중국과 긴장을 고조 시키고 싶지 않다며 고위 관리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배제했다는 내용이 보도. 그러자 미 증시는 재차 반등하며 상승폭을 확대. 한편, 연준은 베이지북을 통해 미국 경기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주장. 또한 경제 활동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으나 아직 미진하며 고용은 PPP 효과가 있으나 수요의 강도가 향후 고용을 결정할 것이라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한 모습을 보여줌. 결국 미 증시는 코로나 백신 기대로 상승 출발 한 후 미-중 마찰 우려로 상승 분 반납, 오후 들어서는 트럼프로 인한 미-중 마찰 완화로 반등폭이 확대된 가운데 연준의 베이지북은 상승을 제한했다고 볼 수 있음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동락률(%)	Close	D-1	지수동락률(%)	Close	D-1
KOSPI		2,201.88	+0.84	홍콩항셱	25,481.58	+0.01
KOSDAQ		781.29	+0.37	영국	6,292.65	+1.83
DOW		26,870.10	+0.85	독일	12,930.98	+1.84
NASDAQ		10,550.49	+0.59	프랑스	5,108.98	+2.03
S&P 500		3,226.56	+0.91	스페인	7,487.60	+1.84
상하이종합		3,361.30	-1.56	그리스	637.29	+1.28
일본		22,945.50	+1.59	이탈리아	20,281.38	+2.0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경기 민감주 강세 지속

아스트로제네카(+7.45%)는 긍정적인 코로나 관련 임상 데이터 발표를 할 것이라는 소식으로 급등했고, 모더나(+6.90%)도 전일 발표된 데이터에 기반해 상승했다. 다만 모더나는 장중 18% 넘게 급등했으나 논란이 있는 표본 포함으로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 라스베가스 샌즈(+6.04%), 윈 리조트(+9.38%) 등 카지노, 리조트, 카니발(+16.22%), 로얄 캐리비언(+21.20%) 등 크루즈 회사 부킹닷컴(+6.08%), 익스피디아(+9.41%) 등 여행주, 델타항공(+9.54%), 보잉(+4.43%) 등 항공 관련주, GM(+4.84%), 포드(+5.97%) 등 자동차 업종이 급등했다.

의류업체인 갭(+12.74%)은 해고로 인한 고정지출 축소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며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되자 급등했다. PVH(+9.18%)도 대규모 해고를 통해 고정지출을 줄이겠다고 발표하자 상승했다. 골드만 삭스(+1.35%)는 양호한 실적 발표 후 상승했다. 반면, 부진한 실적 발표한 유나이티드헬스(-1.44%), ASML(-5.39%), 뉴욕 멜론은행(-5.41%)은 하락했다. 아마존(-2.44%), 넷플릭스(-0.31%), NVIDIA(-1.44%) 등 기술주는 변동성이 확대되며 하락했다. 애플(+0.69%)은 EU가 부과한 130억 유로 세금 납부할 필요 없다는 판결 소식에 상승 출발했으나 매물 출회되며 상승분을 반납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2.98%	대형 가치주 ETF(IVE)	+1.34%
에너지섹터 ETF(OIH)	+4.13%	중형 가치주 ETF(IWS)	+2.67%
소매업체 ETF(XRT)	+3.28%	소형 가치주 ETF(IWN)	+4.18%
금융섹터 ETF(XLF)	+1.98%	대형 성장주 ETF(VUG)	+0.58%
기술섹터 ETF(XLK)	+0.54%	중형 성장주 ETF(IWP)	+1.49%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85%	소형 성장주 ETF(IWO)	+3.03%
인터넷업체 ETF(FDN)	+0.17%	배당주 ETF(DVY)	+2.10%
리츠업체 ETF(XLRE)	+0.46%	신흥국 고배당 ETF(DEM)	-0.08%
주택건설업체 ETF(XHB)	+2.70%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29%
바이오섹터 ETF(IBB)	+1.68%	미국 국채 ETF(IEF)	-0.03%
헬스케어 ETF(XLV)	+1.30%	하이일드 ETF(JNK)	+0.62%
곡물 ETF(DBA)	+1.49%	물가연동채 ETF(TIP)	-0.06%
반도체 ETF(SMH)	-0.46%	Long/short ETF(BTAL)	-3.4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84.02	+1.96%	+3.22%	-7.78%
소재	380.33	+1.67%	+5.07%	+6.96%
산업재	604.71	+2.55%	+4.30%	+1.42%
경기소비재	1,118.24	+0.46%	+1.09%	+6.92%
필수소비재	627.39	+0.01%	+2.44%	+3.21%
헬스케어	1,219.14	+1.32%	+2.77%	+4.71%
금융	401.47	+1.91%	+4.24%	-0.94%
IT	1,893.25	+0.53%	-0.07%	+5.28%
커뮤니케이션	190.86	+0.29%	+1.11%	+3.71%
유틸리티	295.34	-0.44%	+1.14%	-1.30%
부동산	216.95	+0.51%	-0.34%	-3.9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중국 경제지표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는 0.78% MSCI 신흥국 지수 ETF 는 0.30% 상승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01.3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들이 전해지자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상승했다. 그렇지만 백신이 나온다 해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발표된 데이터 또한 논란을 배제할 수 없어 여전히 시장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미-중 마찰과 관련된 혼란 또한 부담이다. 폼페이오가 화웨이에 대한 규제 강화를 언급하며 미 증시 상승 반납을 야기 시켰다면, 트럼프가 중국 고위 관리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원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블룸버그 등 일부 언론 보도는 미 증시 상승 요인이며 이러한 미 행정부 내에서의 엇갈린 내용은 불확실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연준이 베이지북을 통해 미국의 하반기 경기 불확실성을 언급한 가운데 신용평가사인 S&P 는 2 분기 미국 기업들의 신용등급 강등 건수가 414 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결국 파월 연준의장이 지적했듯 코로나로 인해 개별 기업들의 신용 리스크가 확산된 점도 부담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 시각 오전 11 시에 발표되는 중국의 2 분기 GDP 성장률을 비롯해 산업생산, 소매판매, 고정자산투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두 지난 발표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투자 심리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 증시는 이 결과에 따라 변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산업생산 5.4% 급증

6 월 미국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5.4% 증가해 예상(mom +4.4%)를 상회했다. 제조업생산도 전월 대비 7.2% 증가했다. 그러나 전년 대비로는 산업생산은 10.8%, 그 중 제조업 생산은 11.2% 감소했다. 공장가동률은 지난달 65.1%였으나 이번 발표는 68.6%를 기록해 경제 재개로 인해 증가폭이 컸다. 시장은 기저에 의한 결과일 뿐 지속적인 증가폭 확대는 제한될 것으로 평가했다.

7 월 뉴욕연은 제조업지수는 전월(-0.2)나 예상(8.9)를 크게 상회한 17.2로 발표되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신규수주가 기존의 -0.6에서 13.9로 상승하고 고용지수 또한 -3.5에서 0.4로 전환했다.

6 월 미국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1.4%, 수출 물가 또한 1.4% 상승했다. 모두 예상을 상회한 결과다. 특히 에너지 가격이 21.9%나 급등하며 수입물가 상승을 이끌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국제유가 상승

국제유가는 OPEC+ 국가들이 감산량을 하루 평균 970 만 배럴에서 770 만 배럴로 축소 했으나 상승 했다. 감산 이행하지 않는 국가들이 추가적으로 보충한다고 발표해 시장에서는 810 만 배럴 감산으로 해석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진 이후 국제유가는 보합권 등락을 보였는데 예견된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EIA 가 지난 주 원유 재고에 대해 750 만 배럴 감소해 예상인 130 만 배럴 감소를 크게 상회하고 가솔린도 315 만 배럴, 정제유도 45 만 배럴 감소 했다는 발표하자 상승을 확대했다. 더불어 트럼프가 중국 고위 관리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미-중 마찰 우려 완화 기대속 상승폭을 확대했다.

달러화는 산업생산 개선 및 코로나 백신 기대로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자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그러나 미국 기업들의 신용리스크가 부각되고 대형 기술주의 변동성이 확대되자 달러 약세폭이 축소되었으며 엔화는 달러 대비 강세폭을 확대했다.

국채금리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과 경제지표 개선으로 큰 폭으로 상승 출발 했다. 그러나 ①모더나 데이터에 대한 논란 ②미-중 마찰 ③연준의 베이지북 통한 경기 불확실성 언급 ④ S&P500 의 미국 기업 신용 리스크 확대 발표 ⑤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의 “인플레이가 2%를 넘어설 때까지 금리인상을 고려 해서는 안된다” 라는 발언 등으로 상승분이 축소되며 단기물이 하락하는 등 혼조세로 마감했다.

금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 불구 미-중 마찰 우려가 부각되며 혼조 양상을 보였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41.20	+2.26	+0.73	Dollar Index	96.036	-0.23	-0.41
브렌트유	43.79	+2.07	+1.16	EUR/USD	1.1411	+0.10	+0.71
금	1,813.80	+0.02	-0.37	USD/JPY	106.93	-0.29	-0.31
은	19.761	+1.18	+3.13	GBP/USD	1.2590	+0.29	-0.16
알루미늄	1,683.50	-0.30	+1.11	USD/CHF	0.9447	+0.50	+0.68
전기동	6,386.00	-1.73	+2.47	AUD/USD	0.7005	+0.43	+0.33
아연	2,200.50	+0.27	+3.26	USD/CAD	1.3510	-0.77	-0.01
옥수수	326.25	+0.08	-5.78	USD/BRL	5.3832	+0.30	+0.82
밀	550.75	+4.56	+6.63	USD/CNH	6.9828	-0.40	-0.23
대두	882.75	+0.60	-1.62	USD/KRW	1200.50	-0.43	+0.42
커피	97.20	-0.77	-2.80	USD/KRW NDF1M	1201.30	-0.31	+0.76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0.630	+0.66	-3.45	스페인	0.418	+1.30	+1.20
한국	1.412	0.00	+3.70	포르투갈	0.424	+1.30	+2.20
일본	0.035	+0.20	+0.10	그리스	1.273	+0.20	+17.50
독일	-0.444	+0.30	-0.40	이탈리아	1.199	-1.20	-0.10